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제목을 지속하는 신심

병환극복 체험담 SGI-USA 카렌 라베르디에레(Caren Laverdiere)

> 남편의 갑작스런 병환에 대처하면서 투쟁 정신을 새롭게 다지다

카렌 씨는 2005년 초반에 개최되어 모든 회원이 신심의 무한한 파워 체험에 성공하고, 각자의 정법 유포를 위한 사명을 자각하며, 창가 정신에 입각한 실질적인 승리의 창조를 기원하는 SGI-USA 회합에 참석함으로써 권위주의에 도전하고 니치렌 정법의 휴머니즘을 촉진하는 미국 SGI 단체의 총체적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SGI-USA 의 부인부 리더인 린다 잔슨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게끔 회원들을 격려했는데, 카렌은 그 목표가 자신과 남편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렌과 남편에게는 20년 이상을 함께 불도 수행한 후에 워싱턴의 아름답고 조용한 골프장 위에 자리한 유니온 마을에 거주하는 꿈이 실현되었습니다.

카렌은 6월 27일 아침에 남편이 이력서를 보낸 직장에 취업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니치렌 정법의 현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면서 제목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남편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와서 남편이 현기증과 구토증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 갔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카렌은 남편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커피를 과음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CT 스캔 결과 비강액이 고여오는 것이 나타났고, 남편이 목과 왼쪽 눈 윗부분에 두통을 호소해서 의사가 MRI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은 피로와 구토증을 느껴 아무 것도 먹지 못했지만, 원하던 직장에 취직되었다는 좋은 소식도 있었기에 기분이 좀 나아진 상태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의 숙면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카렌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경에 '쿵'하는 소리를 듣고 남편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쓰러진 채로 침을 삼키거나 말을 하기가 곤란한 상태였고 고무다리가 된 것처럼 힘이 없어서 일어설 수가 없다고 하면서도 병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카렌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본존님 앞으로 가서 몇 분간 남묘호렌게교를 부르자 결론이 명확해졌는데, 남편을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의 남편이 보이는 증상에서 중풍을 의심했고 남편의 상태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썼고 의사들은 '중풍'을 재차 언급했을 때 그녀는 충격으로 경직되었지만, 함께 즐기려고 계획했던 앞으로의 세월을 생각하면서 "아니, 난 아직 당신과 끝나지 않았어요."라고 카렌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동안 그녀는 강성하게 제목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중풍 증세 때문

에 음식물을 삼키거나 말을 하지 못했고, 구토 후에 내용물이 폐로 넘어가는 바람에 통기용 튜브를 삽입하여 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증상은 자동차를 수리하면서 목을 길게 늘린 상태에서 머리를 너무 빨리 돌렸기 때문에 뇌간이 찢어진 것이 원인이었는데, 암담해 보이는 상태였지만 카렌은 남편의 회복을 굳게 결의했습니다.

1987년, 심장으로의 혈액 유입이 부족하여 가슴에 강한 통증을 유발하는 협심증으로 진단 받고 남편이 심장 수술 대상자가 되었을 때 카렌은 몇 시간에 걸쳐서 계속 제목을 불렀습니다. 남편의 동맥이 수술 없이 뚫렸을 때 의사들도 놀랐지만,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 말씀 중에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두 구절이 그녀의 마음 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묘호렌게교는 사자후와 같으니 어떠한 질병인들 난관이 되겠는가?" 그리고 "다른 어떤 병법보다도 법화경의 병법을 쓰실지어다." 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생존에 대한 단호한 결의로 제목을 계속했지만 신경과 의사를 포함한 병원 의료진들은 그녀의 확신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뇌하에 수액이 차오르고 뇌간이 부어올라서 신경외과의가 배수관 삽입 시술을 예약했지만, 카렌은 심각한 예후에 직면해서도 부동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학회 간부님들께 연락하여 함께 남편을 위해 제목을 부르면서 다른 회원들에게도 기원을 당부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간호사들이 그녀가 원기 왕성해 보인다고 말했고, 남편 역시 온갖 튜브들에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기운을 차린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고통 받는 첫 몇 주 동안 불도수행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의 난관과 장애에 직면하는 것은 카렌의 결의를 극도의 한계까지 시험했습니다. 매번의 승리 때마다 증가되는 확신에 힘입어서 결의는 더욱 강해졌고,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그녀는 "두렵지 않다. 제목을 더 불려야지."라고 생각했으며, SGI 이케다 선생님께 승리의 결의를 전하는 편지도 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은 강해지고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제목을 계속함에 따라서 카렌은 그녀를 돕고 있는 시애틀 SGI 회원들의 힘을 느꼈고, 얼마 후 부터 남편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T 스캔 결과, 약간의 조직 손상이 있긴 했지만 척수액이 자력으로 배수되는 것을 보고 의사들이 전반적인 결과에 놀라워하면서 "투쟁적인 호전"이라고 했는데, 카렌은 그 명칭이 신심을 통해 난관을 극복하려는 자신의 결의를 적절하게 묘사하는 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이기만 한 의료적 예후들의 맹공격에 희생당하는 대신에, 그녀는 완전한 승리의 성취에만 온 정신을 모았던 것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보낸 후에 남편은 일반 환자 회복실로 옮겨졌고, 폐렴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빠른 회복의 경로에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난관에도 불구하고, 카렌은 남묘호렌게교를 부르는 제목을 지속하면서 남편이 퇴원 시점에는 걷고, 말하고, 튜브 없이 먹을 수 있게 되게끔 만드는 그녀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침상 곁에서 그녀는 니치렌 대성인의 어서와 이케다 선생님의 격려문을 읽었고, 매일 같이 최대한 제목을 불렀습니다. 다시 한 주가 지나자 남편의 담당자가 그를 요양원에 보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남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느낀 카렌이 당당하게 그 담당자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의견을 고수함으로써 남편은 병원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카렌은 남편에게 "반드시 현증을 보여주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아요. 제목을 계속합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주 후의 CT 스캔 결과, 남편의 뇌가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기가 거의 완전히 사라졌고 수액이 고여 있지도 않았습니 다. 다음 날, 카렌은 이케다 선생님께 보낸 그녀의 편지에 대한 답신을 받았는데, "서신에 감사드립니다. 남편 분을 위해 제목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라고 적힌 선생님의 관심과 염려가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카렌의 더욱 강해진 확신과 결의, 그리고 증가된 제목량이 주변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남편은 빠른 속도로 회복해 갔습니 다. 8월 16일에 남편은 위장에 연결된 튜브 외에는 혼자서 걷고, 말하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상태로 마침내 귀가함으로써 그들이 기원한 목표가 성취되었습니다.

카렌은 남편의 새로운 고용주에게서 남편의 근무 시작일이 몇 달 후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주어진 것입니다. 11월 경에 남편은 목소리를 완전히 되찾고 체력도 증강되고 있었으며, 뇌간의 손상도 아물어서 현기증이 가라앉고 균형감각이 증진되어 모든 의료진의 치료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카렌 부부는 SGI-USA 신년 회합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회원들이 당신의 놀라운 회복을 보고 자신들도 역시 승리했음을 알아야 해요." 라고 카렌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 없이 회관으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은 3개월 전에 그가 회합에 참석했던 모습과 비교할 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남편은 새 직장으로 출근했는데, 남편이 완전히 회복된 후에야 근무가 시작된 것입니다.

"제 남편과 저는 유니온 마을에서 사명이 있고 앞으로도 오래 동안 함께 할 것입니다. 남편은 앞으로 최소한 40년은 더 살고 싶다고 병원에서 제게 말했는데, 그는 올해 10월에 68세가 되죠! 이번에 겪은 일은 저희의 삶을 전환시켰고, 저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저희에게 삶에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주었기에, 예전에 저희를 괴롭혔던 다른 모든 사소한 것들이 이제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카렌에게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당신의 결의가 변화할

때(확고해질 때), 모든 것이 당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승리를 결의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존재에 연관된 모든 구성요소가 즉시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어갑니다," 라는 이케다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카렌은 니치렌 정법 수행과 신심이 제공하는 무한대의 파워를 자신이 경험했다고 느끼며, 남편의 병환 동안에 그녀가 제목을 부른 방식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에 관해 제목을 불러야 할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